

1/26/20

설교 제목: 만물 창조와 그 절정인 사람 창조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 창세기 1 장 26-31 절

-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창 1: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 (창 1: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절관주** 욥 37:18, 시 33:6, 시 136:5, 렘 10:12
-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 (창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절관주** 욥 26:10, 시 33:7, 잠 8:29, 렘 5:22
- (창 1: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절관주** 히 6:7
- (창 1: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 1: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 (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절관주** 신 4:19, 시 74:16
- (창 1: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 (창 1: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 (창 1: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 1: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 (창 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절관주** 시 104:24
- (창 1: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 1: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 (창 1: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 (창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 1: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절관주** 시 145:15
- (창 1: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절관주** 시 104:24, 딤후 4:4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물들이 단순히 아름다워서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일치되고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모순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서 절정은 바로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위해 당신의 온갖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 대해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외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무엇 무엇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의논이었습니다.

2.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김새 즉 눈 코 입 등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 코 입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형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 성품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인간이 갖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성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본 어게인(born again)되지 않은 사람들의 영은 죽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며 삽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으로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둘째는 이성입니다.

인간은 이성 즉 사고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도덕성입니다.

인간은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할 경우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넷째는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무슨 일을 하던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 결정하여 하게 하셨고 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격성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과 서로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인 영성 이성 도덕성 자율성 인격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대신해 이 땅과 만물을 통치할 대리인으로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비롯한 만물들을 잘 사용하고 다스리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에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당당한 자존감을 말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콤플렉스의 발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무식하다고 무시당할까봐 모르면서도 아는 척 행동하는 것 등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그런 자존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지 않는 당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돈 권력 권위 힘 등등, 세상 어떤 것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외로움도 사람들의 비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하도록,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남녀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5.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에 충만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온 땅을 뒤덮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당신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어느 날 우연히 생겨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연 진화되어 생겨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과 의논을 거친 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동원해서 당신들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신앙에 의거하여 우리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 돈 권력 지위 등등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여 그것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앎이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더라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